

기말 시험 대면 원칙 성적은 절대평가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우리학교가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과 기말고사 대면 시험 시행을 공지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학기 학사운영 결정사항을 공지했다. 이는 지난 7일 부총장단의 1학기 학사운영 공지에 대한 추가 안내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 실시 ▲조건적 대면 수업 실시 ▲기말고사 대면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1학기 수업은 전체 비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 및 이론 강좌 모두 오는 20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부총장단은 “효율적인 수업 내용 전달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5월 20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교강사와 수강생이 소통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수강생 중 일부만 대면 수업에 동의한 경우에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대면 수업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강의 녹화영상을 제공하거나 실시간으로 강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 대면 수업에 사정상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때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비대면 수업 수강과 성적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강생 전원이 대면 수업에 동의한

전체 비대면 수업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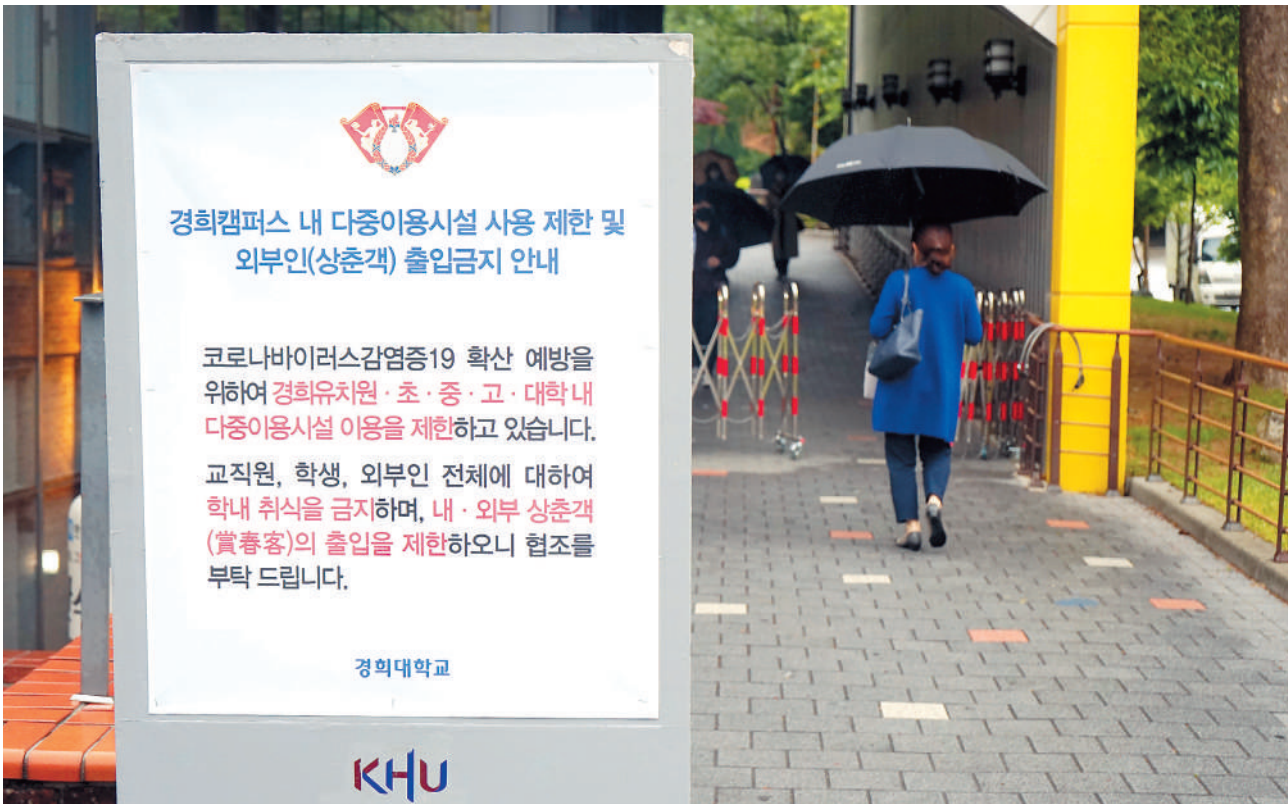
오는 20일부터 대면 수업 가능
총학은 비대면 기말 시험 요구

경우에는 대면 수업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사지원팀은 “수강생 3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에 대해 대면 수업을 권고하나, 30명 초과 시에도 수강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장의 승인 후 대면 수업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강사가 수강생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시험을 대신해 과제물 평가 등의 방법으로 치러졌던 중간고사와는 달리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팀은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경우 부정 발생의 소지가 있고, 명확한 평가가 어려워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사지원팀 또한 “공정성 측면에서 대면 시험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면 시험이 불가능한 수강생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확진자,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 대면 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은 과제물 평가나 실시간 비대면 평가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은 대면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성적은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3면으로 이어짐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긴장의 끈 놓지 못하는 학교

이태원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150명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풀리고 있던 통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해제됐던 정문 출입통제도 다시 시작됐다.
(사진=장보경 기자)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 감염, 교내 통제 다시 강화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서울】‘이태원 유흥시설 집단 감염’ 여파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 발생하면서 교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종합 상황실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약학대학 재학생 A 씨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태원 방문 이후 교내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외 실습을 함께 진행한 밀접 접촉자 3명의 학내 동선 역시 없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 집단 감염 우려가 퍼짐에 따라 교내 출입 통제 또한 다시금 강화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무팀 장세윤 과장은 “단과대학과 각 건물 출입문 통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태원 사태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13일부터는 정부 방역체계가 ‘생활 속

지난 12일 이태원발 코로나19 우리학교 재학생 발생

“출입문 통제 완화 논의, 이태원 사태로 중단”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해제됐던 정문 출입 통제도 다시 이뤄졌다.

추가 감염에 대한 대응으로 이태원 방문 여부 전수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의 익명 검사 방침과 개인정보 문제로 학교 차원에서 선제적 대처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종합 상황실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강제로 신고토록 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 또한 익명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가 나서 선제적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차 감염 발생 가능성 배제를 위해 일부 교내 시설 이용 또한 다시 제한된다. 서울캠 총무팀은 1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등에 따른 건물통제 및 출입제한 시행 안내’ 공지를 통해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 전체를 대상으로 각 단과대학 및 교내 시설의 건물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도서관, 열람실, 고시반, 국시실, 동아리실 등의 내부 공간과 본관 분수대, 중앙도서관 숲, 선동호, 청운관 녹원, 평화의 전당 관장 산책로 전체 등의 외부 공간이 해당한다.

한편 전국에서 집계된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16일 기준 16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3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감소세에 있던 자가격리자 수도 다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5일 이후 하루 1,2천 명씩 감소하던 자가격리자 수가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계절학기 공지 수정...비대면으로 시행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진행 방식이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된다. 절대평가 실시 등 수업 운영에 관한 공지 내용도 수정됐다.

지난 13일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하계 계절학기 수업 변경 내용이 추가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는 지난 달 28일 하계 계절학기 수업 개설 공지가 있는 후 학교 측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이 요청사항을 일부 반영해 재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하계 계절학기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단 이론 강좌 중 불가피하게 대면수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하며, 실험 실습 및 실기 강좌는 대면수업으로 운영 가능하다. 또한 계절학기 기말시험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성적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변경됐다.

수업료는 이전 공지와 같이 학점 당 9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9.3% 인상됐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12월 서울캠

퍼스(서울캠)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가 발표한 ‘등책위 합의안’에서 다룬 내용이다. 당시 학교 측의 미흡한 인프라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상이 이뤄졌으며 대신 학생위원이 몇 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서조항은 ‘계절학기 폐강 기준 완화’, ‘계절학기 희망과목 담기 시행’ 등이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캠 총학생회는 “계절학기 수업료 재논의와 수업료 인상에 대한 조건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면안내

특집기획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코로나19로 체험한 미래 교육 >> 4~5면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연재기획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 6면

알림

사령

명
<정기자>
김가연(국어국문학 2019), 이지민(국어국문학 2018)

시선

사설

‘뉴노멀’ 요구되는 대학사회

코로나19가 대학사회를 다시 위협하고 있다. 이태원동 클럽에서 재 확산된 코로나19가 2차, 3차 감염까지 발생시키며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이다. 서울캠퍼스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와 국제캠퍼스가 있는 경기 용인시에서도 이태원 전파 확진자가 나타났다. 지난 4월 28일 이후 다시 시작된 캠퍼스 주변 지역사회 감염이었다. 한때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지 불과 며칠 만에 나타난 결과다.

15일 정오 기준 이태원동 클럽 관련 확진자는 153명을 기록한 상태다. 그중 19~29세 확진자는 93명으로 젊은 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태원을 방문한 우리학교 재학생 1명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감염 후 학교에 방문하지 않아 다행히 피해가 대학으로 확산되진 않았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의 기간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대학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위협에 구성원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특히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사회 내에 더 많은 경각심을 일깨웠다. 등교해 수업을 듣거나 선배, 동기, 후배들과 모임을 갖고, 가끔은 변화가에 나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당연한 일상은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상적인 대학교육과 자유로운 일상이 더 이상 양립하기 어려움을 드러냈다. 사회 전반에

서 고조되는 새로운 표준, ‘뉴노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대학교 예외가 아니다. 이전의 자유분방한 일상은 자제하고 거리두기를 생활화한 새로운 일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학 내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건 그 정도를 완화했을 뿐 여전히 주의를 늦추지 않아야함을 뜻한다. 구성원들은 밀집시설 이용 등을 자제하고 느슨해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보수적으로 일상을 대해야 단 하나의 예외로 퍼질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는 감염 경로를 철저히 예방해도 불가피하게 코로나19에 전염될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감염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때 코로나19는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다.

게임 이론의 사례 죄수의 딜레마는 두 용의자가 침묵하기로 한 협의를 깨뜨릴 때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이론이다. 협력적인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며, 사익을 위해 행동할 때 더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대학사회도 이와 같은 딜레마에 적용될 수 있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일부의 선택은 대학 공동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코로나19를 언제든지 학내로 불러올 수 있다. 이젠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기보다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학사회 뉴노멀의 정착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다.

정의라는 이름의 길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다시 5월 18일이다. 이날을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만든, 1980년 5월 18일로부터 마흔 번째다. 1980년의 그 날 이후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5월 18일은 누군가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터부, 누군가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 누군가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부채의식, 누군가에게는 잊어선 안 될 맹세였다.

지난 총선 기간, 광주에 출마한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낳았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 자리에서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맹자』의 첫머리에는 이런 일화가 등장한다. 양혜왕이 맹자를 초빙해 나라를 이롭게 할 길을 묻자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이로운(利)을 말씀하십니까? 다만 어짊(仁)과 의로움(義)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답한다. 왕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를 처음 묻자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도덕과 명분을 먼저 바로 세우라고 일갈한 것이다. 무엇이 이로우시고 무엇이 의로

움인지, 그 둘 사이에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다만 새겨볼 점은 언제나 이로움보다 의로움만을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의로움을 논해야 할 때 손익을 앞세워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닐까. 또한 재부를 위해서는 정의와 윤리도 우순은 농담거리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필시 진정으로 이로운 변화 또한 꾀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를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말한 모 후보의 발언은 말의 품위 없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말의 바탕이 되는 역사와 정의에 대한 인식의 알파함이다. 그런 알파함이 만연할수록 맹목적인 탐욕과 공허한 정신의 지배라는 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면역력은 약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월 18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명의 사람이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에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국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국격의 고귀함과 비루함은 한 나라가 지나온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달력을 펼쳐보면 등장하는 많은 기념일들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달력은 그 날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까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억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흐릿해지고 결국에는 한 줄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군대를 앞세워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짓밟으려 하는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항해 일어섰다. 5월 26일,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군은 곧 계엄군이 들이닥치리라는 예상에 귀가 권고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다음날 새벽 4시 계엄군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 도청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남아있었다. 남아있던 이들은, 이길 수는 없을 테지만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빈 도청을 내줄 수 없어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국군의 총과 군화발에 다치고 죽었다.

맹자는 “어짊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로움은 사람의 길이다(仁人心也 義人路也)”라고 말한다. 어짊이 착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의로움은 모질고 악랄한 말과 행동을 마땅히 미워하고 분노할 줄 아는 것이다. 야만과 폭력이 원칙과 윤리를 비웃고, 내 이웃을 짓밟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그대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는 용기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정의라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앞서서 나간 이들을 위해, 산자들은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변화는 늘 두렵지만

취재수첩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벚꽃이 자취를 감춘 5월, 우리는 아직도 전자기기 속 작은 화면으로 강의를 듣고 있다. 한두 주 개강 연기로 해결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우리의 일상에 가지를 뺏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번 사태를 시작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온라인 강의로의 교육 패러다임 대변환이다.

몇 년 전부터 21세기를 이야기할 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빠지지 않는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개발되며 우리 생활에 거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이에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체감하고 있다. 휴대폰에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탑재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제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똑똑한 머리는 물론, 창의성, 협동력, 비판적

사고력, 거기에 인간 관리 능력까지 갖췄기를 바란다. 더욱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평생직장을 갖기 힘든 요즘, 사람들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계발을 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이에 발맞춰 대학 교육도 변화를 모색했다. 대학은 평생교육의 선제 조건인 시공간 제약 극복을 위해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전 세계 대학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도 등교를 미루고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 본의 아니게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 기반이 생겼다.

급하게 시작된 온라인 강의에는 허점이 많았다. 교수님도 학생도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았고 인프라 부족과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 전문가들은 온라인 교육의 긍정성을 논했다. “평생교육과 다양성 존중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온라인 교육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강의의 비용 절감 효과와 시공간 제약 극복도 주목받았다.

나 또한 오프라인 교육 중심 사회에서 자랐기에, 온라인 교육을 예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와 닿지 않았다. 온라인 교육은 어딘가 부족하고 대안적

인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기술 발달은 온라인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확장했다. 이제 온라인 강의는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한 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상현실혼합기술을 통해 강의의 생생함을 살리고, 학습 분석기술과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학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 수업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더욱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는 교수님의 인터뷰 답변도 놀라웠다. 기술은 점점 정교해질 것이고 교육 모델도 발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 대해 가졌던 반감이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화는 늘 두렵다. 이미 정립된 교육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 교육도 변화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지금의 과도를 잘 넘겨 온·오프라인이 적절히 융합된 활기찬 교육의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만평 - 모니터로 만나는 미래 교육



양여진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미디어디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향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1면 ‘학사일정’에서 이어짐

하지만 학교가 내놓은 학사 운영 일정에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윤아(국어국문학 2019) 씨는 기말고사 시행 방식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시험을 본다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같은 수업 안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말 시험을 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절대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강생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캠 학사지원팀 또한 “교수님들께 최대한 평가에 차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말고사만을 이유로 학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거주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곽 씨는 “기말고사가 대면으로 치러진다면 지방 거주 학생들은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지윤(사회학 2018) 씨 또한 “시험기간 동안 머무를 숙소를 구해야 한다”며 “기차나 숙소는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기숙사가 부족해 숙소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제캠 우정원 서명옥 행정계장은 “기말고사 기간에 등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임시 입사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주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7일로, 주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서 계장은 “우정원과 제2기숙사 학생이 입사한 후 공실 인원 내에서 수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치르는 중앙대학교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을 배려해 기말시험 기간 생활관 숙소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대학교는 기말고사를 총 3주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홍익대학교 교무처장은 “안전을 위해 기말고사 시행일을 분산했다”며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대면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생회는 “이태원과 동대문구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다”며 “기말고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시험이 필수적인 강의는 최소 2주 전 공지한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학사지원팀이 공지한 사항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바뀔 공간이 크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고, 우리학교 재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통제를 완화하긴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캠 학사지원팀의 공식 입장은 “현재로서는 일정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교강사들이 이번 사태로 대면 수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학가는 대면 수업 여부를 두고 다시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민대학교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지난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대면 수업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국민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이론 수업의 대면 수업 시작 가능일을 6월 1일 이후로 연기했다. 한양대학교 교무처장은 지난 12일 “클럽 집단감염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대면수업 실시 일정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등록금’ 논의 1학기 종강 이후로 ‘대학혁신’ 예산 활용, 교육부 거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등록금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양 캠퍼스(양캠) 총학생회(총학)가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를 양보했음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4월 30일 새로 선임된 학무부총장은 그동안 부총장의 부재를 이유로 논의를 미뤘은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또한 지난 3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쿠티비 KHU TV’를 통해 “등록금 조정에 대한 논의 및 알권리 보장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반 학기 이상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과 양캠 총학은 ‘등록금 재논의’와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를 논의해온 바 있다. 서울캠 총학은 3월 17일부터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및 책정 재논의’를 요구하며 본관 총장실 항의 방문, 등책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4월 23일에는 청량리역에서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을 위한 동대문구 3개 대학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등책위 개최’, ‘부총장 선임’ 등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조율을 통해 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제캠에서도 등록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월 27일 부총장 주재 회의에 참석한 총학은 학습권 보장 및 등록금 인화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현재 시점에서 등록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비

대면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1차 입장을 내놓았다.

3월 30일 국제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비대면 수업의 질적 향상만으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4월 2일 부총장 주재 회의에서 재차 등록금 문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등록금에 관해 재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2차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운위는 공통으로 쓰이는 금액과 단위별 커리큘럼에 쓰이는 금액을 파악했다. 또 2020학년도 자금예산 편성안을 분석, 등록금 운용 방식과 단과대학별 등록금 운용 방식을 공유해 예산 항목에서 관리 운영비에 속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20일 국제캠 소통위원회에서 국제캠 총학은 논의한 자료를 토대로 학교 측에 등록금 재논의 시기 확정을 요구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비대면 수업 플랫폼 계약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해 대학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고

려되고 있어 교육부 정책 결정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3차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거절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입장 표명 이후 지난 7일 국제캠 부총장 주재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총학은 “늦어도 6월초에 등록금 재논의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우리학교는 “재논의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는 4차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는 1학기 종강 이후 예결산이 완료되고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학교가 “재정지원 없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예산변동의 폭도 크기 때문에 1학기가 끝난 뒤 내역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캠 총학 역시 1학기 예결산을 바탕으로 학교 측과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학교
3월 1일		재논의 첫 요청	
17일	재논의 요구		
20일	총장실 항의 방문		
23일	ㄱ	협조 요청문 전달	
25일	본관 릴레이 피케팅	기자회견	
26일			
27일	ㄴ	부총장 주재 회의	1차 입장
4월 2일		부총장 주재 회의	2차 입장
20일		소통위원회	3차 입장
23일	합동 기자회견		
5월 4일	입장 촉구 성명서 발표		
6일	소통위원회		
7일		부총장 주재 회의	4차 입장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도전

꿈에 도전하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0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6월 5일
- 방법 : 인터넷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6. 13. (토), 합격자 발표 : 7. 10. (금)
- 2차 면접평가 : 9. 7 (월) ~ 9. 25(월)
합격자 발표 : 10. 1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4.(금)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문의처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 02-961-0085~6
국제 : 031-201-3271~4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코로나19로 체험한 미래교육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한진석 기자 j_inseok@khu.ac.kr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전 세계 대학들은 전면 온라인 강의를 했다. 갑작스러운 교육 시스템 변화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했지만, 급속한 사회변혁은 전부터 대학교육의 또 다른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떠오른 것은 온라인 강의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다.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 제약을 극복해 평생 교육을 가능케 하고 기술 발달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강의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살펴봤다.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 이는 2016년 6월 다보스 포럼 (Davos Forum)에서 처음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용어를 처음 고안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가 한 말이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세계의 전 분야에 걸쳐 그야말로 ‘초월’을 불러올 것임을 밝힌 셈이다.

진리를 탐구하고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대학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화여자대학 정제영(교육학) 교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AI발전과 직업환경의 변화, 학령인구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다양성의 증가 등이 그 이유다.

먼저 AI보급으로 직업환경이 바뀌면서 대학에 요구되는 교육내용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세계인공지능학회 수장자인 우리대학 이경전(경영학) 교수는 “AI가 발전하며 모든 학문에서 AI의 역할이 커지면서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능에 AI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예술 전공자가 AI 기술을 배움으로써 더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호성성이슈모니터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직능을 넘나드는 업무 기술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융합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단순 지식을 넘어 지식 간의 융합과 새로운 지식의 창조가 요구되면서 교육현장에서 역시 융합의 가치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평생교육이 필요해진 탓도 있다. 권계은 평생교육원장은 “4차 산업혁명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제도권 교육

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자유롭게 탐구하는 평생 학습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제2, 제3의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히 융합한 발전된 형태의 평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다양성의 증가다. 교육공의 단체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이찬승 대표는 “21세기는 학생 간 능력, 학습준비도, 학습양식, 흥미, 장래희망, 문화자본, 인종 등의 차이가 어느 때보다 뚜렷한 시대”라며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중이 50%가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 이상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 거라는 예측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헬싱키 디자인 연구소는 “미래사회의 교육 시스템 성공 여부는 학생들의 다양성에 얼마나 잘 대처하며 모든 학생을 학습에 참여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 예고 “온라인 강의는 교육의 요구를 반영”

이에 우리대학 교육정책 전문가인 조영하(교육대학원) 교수와 온라인 학습전문가 김소희(교수학습지원센터) 객원교수는 2018년 발표한 ‘대학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의 활동 동향과 교수학습적 함의’를 통해 “교육현장의 새로운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온라인 강의”라며 “교육현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오프라인 강의와 함께 온라인 강의가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학의 교육은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요구하는 만큼 온라인 강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온라인 교육으로의 교육방식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대학 이경전(경영학) 교수도 “현재 온라인 강의를 위한 기술적 제반이 잘 마련돼 있고, 온라인 학습이 734개 강좌에 대한 수업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수업을 지원 중이다. 우리대학도 지난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중핵교과 중 하나인 ‘빅백에서 문명까지’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플립러닝이란 온라인 수업에서는 특정이론을 설명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이다. 이에 우리대학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전공 교수의 수에 비해 학생들이 수요가 많아 대형 강의를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이론 수업이나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온라인 강의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플립러닝을 생각해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플립러닝 도입 후 교수나 학생들을 느끼고 준비해온 학교들이 주목받

고 있다.

실제로 MIT는 이전부터 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매진했다. 전공과 무관한 자유로운 교육 기회 보장, 평생 교육 강화, 미래 디지털 기술 습득을 도왔다. 이로써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과정이 편의성, 소통,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비용 부담절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중 개방형 온라인 과정(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을 통해 졸업생 및 일반인의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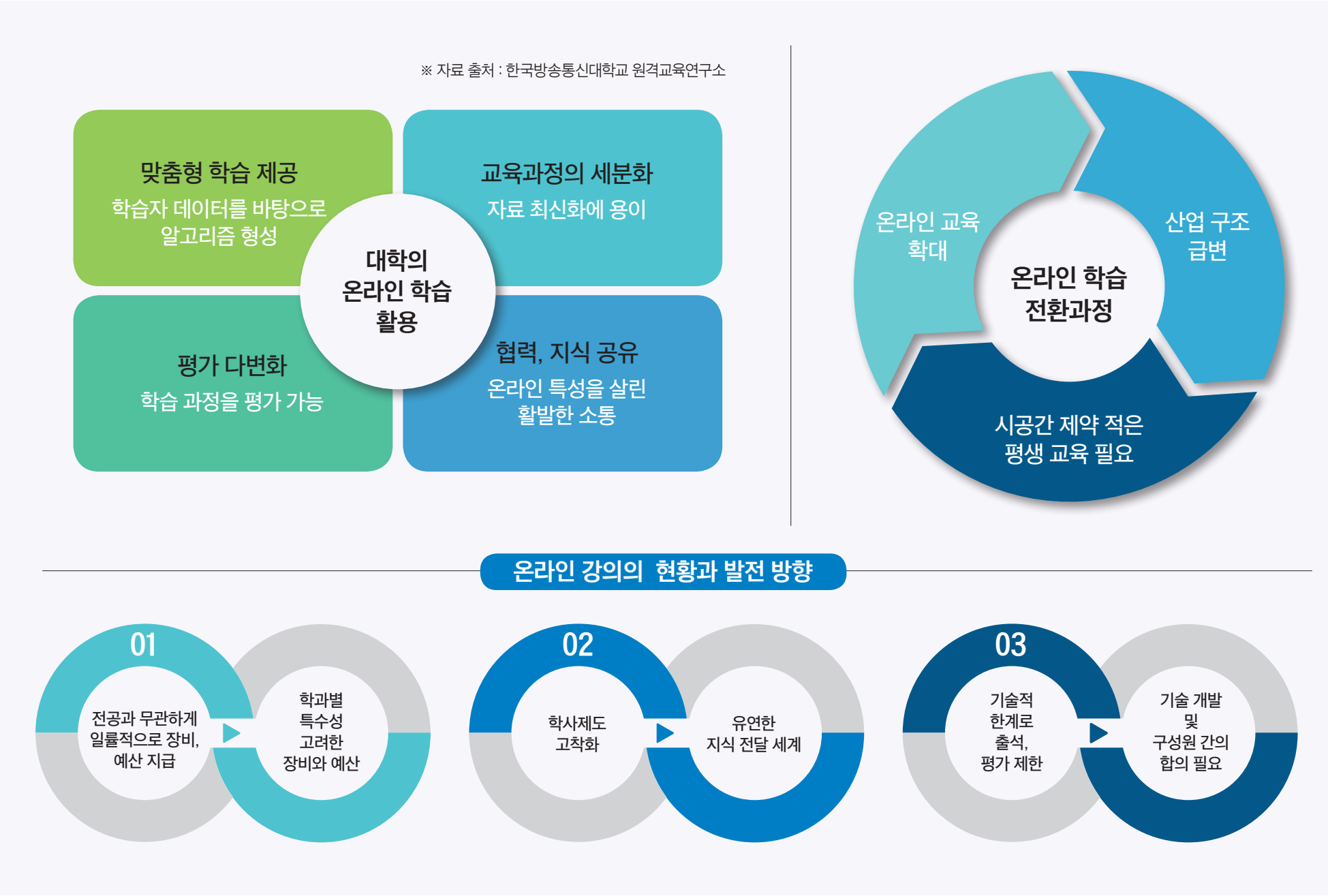
국내에서도 일찍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 2003년부터 ‘E-Learning’을 통한 고등교육 불균형 해소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대학이러닝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권역별 10개 이상 대학이 해당 권역 이러닝센터와 협력해 웹 기반의 자기주도형 학습을 지원하고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보급·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환경을 갖춰 화제가 된 영남대도 대상 학교 중 하나다.

영남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스마트교육팀 김미영 팀장은 “영남대학교는 2005년 대구경북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로 지정된 후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며 “꾸준한 온라인 인프라 개발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대학차원에서 원격 강의 지침 준수, 온라인 콘텐츠 품질 관리, 저작권 문제 해결 등 행정 제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남대 교육개발센터는 온라인 강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다. 첨단강의실 65개, 일반강의실 220여 개, 교수연구실, 실험실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도구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제작·배포하고 2020학년도 1학기 현재는 학부 3,082개 강좌, 대학원 734개 강좌에 대한 수업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수업을 지원 중이다.

우리대학도 지난 2018학년도 2학기부터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중핵교과 중 하나인 ‘빅백에서 문명까지’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플립러닝이란 온라인 수업에서는 특정이론을 설명하고, 강의실 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이다. 이에 우리대학 권영균(물리학) 교수는 “전공 교수의 수에 비해 학생들이 수요가 많아 대형 강의를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이론 수업이나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온라인 강의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플립러닝을 생각해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플립러닝 도입 후 교수나 학생들을 느끼고 준비해온 학교들이 주목받



이 방식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의 가능성과 한계 공존 “감염병은 새로운 교육모형을 촉진”

갑작스러운 교육 방식의 변화가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래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일시적인 오프라인 강의 대체가 아닌 온라인 강의 비중을 확대하는 학사과정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국내의 온라인 교육의 대중화를 연구하고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인 MOOC 2세대 개념을 제시한 경희사이버대학 여운일(컴퓨터정보통신공학) 교수 역시 “감염병의 유행은 늘 새로운 교육 환경 모델을 촉진시켰다”면서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처럼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때 다음 시대의 기술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환경이 필수”라고 코로나19 사태가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을 촉진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전면 대체는 대학이 보유한 온라인 교육환경의 한계도 드러냈다. 실기·실습·실험·설계수업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힘든 수업에서 교수와 학생 간 소통 문제가 그것이다. 실험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한재민(생물학 2019) 씨는 “이동시간은 단축되지만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없어 정확한 이해가 힘들고 실제 실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를 분

석해볼 수 없다”며 온라인 실험 수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학습 환경이 변화되면서 유학생이나 장애학생의 입장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인 두리도나(경영학 2019)씨는 “강의실에 수강할 땐 교수님이나 학우들에게 바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해결할 수 있었지만 녹화된 강의 시스템에서는 즉각적인 답을 듣기 어려웠다”며 “현행 온라인 강의에는 즉각적인 소통 창구가 없어 이해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에서 들을 때보다 정확한 발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막이나 발음이 명확한 녹음 등 외국인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내 장애인식개선봉사단 단원 김민제(행정학 2018)씨는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면 장애학생의 입장에서는 분명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 시 알겠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현재로서는 관련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상황에 맞게 자막을 제공하는 시스템 등이 개발되면 학습권도 보장하고 미래 대학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비한 인프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대 박상규 총장은 “개강 첫 날 외에는 시스템 상 문제가 없지만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며 “교수가 실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차를 분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다”고 제작 환경의 부족함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학의 온라인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인관계,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 시 동시 접속에 수강 인원 제한이 있어 오프라인 강의보다 학생들의 수강 참여 확인이 어렵다. 우리대학 이대호(소프트웨어융합학) 교수는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수강 참여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의무적인 개인 모니터링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지에서 여러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5월 8일 온라인 강의 우수 사례 공유 특강을 진행해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날 국민대 최현주(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온라인 강의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주안점을 두

고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운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교수는 “화상회의 용도로 기업에서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ZOOM은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는 데 큰 장점이 있어 대학에서도 선호도가 높다”며 “온라인 강의의 핵심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학교의 학습 기법 공유에서 눈에 띄는 강의 방식은 녹화된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사전에 교육을 듣고 실시간 강의에서 질문하거나 실시간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녹화 강의를 통해 확인하는 교육 방식이 실현되는 것이다. 노현수(국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2017)씨는 “온라인 강의가 대부분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번갈아 진행해 질문 해결에 어려움이 없고, 학생들의 집중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다양한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만족하는 온라인 강의의 특성에 대해 전했다. 또 “강의 중에도 최신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온라인 학습의 감점을 느끼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우리대학 이대호 교수는 재정과 행정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교강사에게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장비 및 환경 사용에 대한 지원, 원활한 온라인 수강을 위한 학생들의 장비나 통신 지원을 언급했다. 그 외에도 각 전공 수업에 맞는 환경 구축(소프트웨어융합대학처럼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 고성능 서버 확대를 제공하는 것 등), 온라인 수업의 명확한 정의,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분류, 학생과 교강사들의 지속적 의견 수

령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사를 밝혔다. 또한 이경전 교수는 “다양한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온라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결돼야 할 장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한 ‘대학교육에서 온라인학습의 활용 동향과 교수학습적 함의’ 연구는 온라인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언급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온라인 교육은 수강생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만 치중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가 형성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평가 방식 역시 다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온라인 교육에서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평가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면 온라인상에서 부정행위 등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어 제도의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업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라인 교육의 교수자는 학업 평가를 단순한 시험 결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수자가 평가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고, 개별 이해도로 학습자의 발전 양상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의의 세분화도 온라인 교육의 확장에 필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사회의 정보를 강의에 반영하고,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의 콘텐츠도 필요에 맞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는 협력과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논한다. 실시간 소통 채널이 부족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터넷 기반 학습이라는 특성을 살려 지식 공유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교수진은 학교의 온라인 강의 역량을 평가하고 강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온라인 강의의 점진적 확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교육 확대를 위해 개선될 부분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강의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경전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수업을 교실에서 들어야 한다는 기존 사고방식이 깨졌다”며 “어느 정도 온라인 학습에 익숙해졌으므로 향후에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온라인 강의의 지속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대호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학기 동안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SW의 사용이 확대되었고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용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단기적인 온라인 수업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서버 확충 및 장비 보급, 평가 방식 등은 점진적으로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들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빠른 통신 속도, 온라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및 SW가 이미 보급되어 있어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편”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한 박사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든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뽐낼게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news>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news_jubo
메일 khnews@khu.ac.kr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총여 폐지, 새 시대의 성평등인가 학생자치의 자기파괴인가

2부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연재 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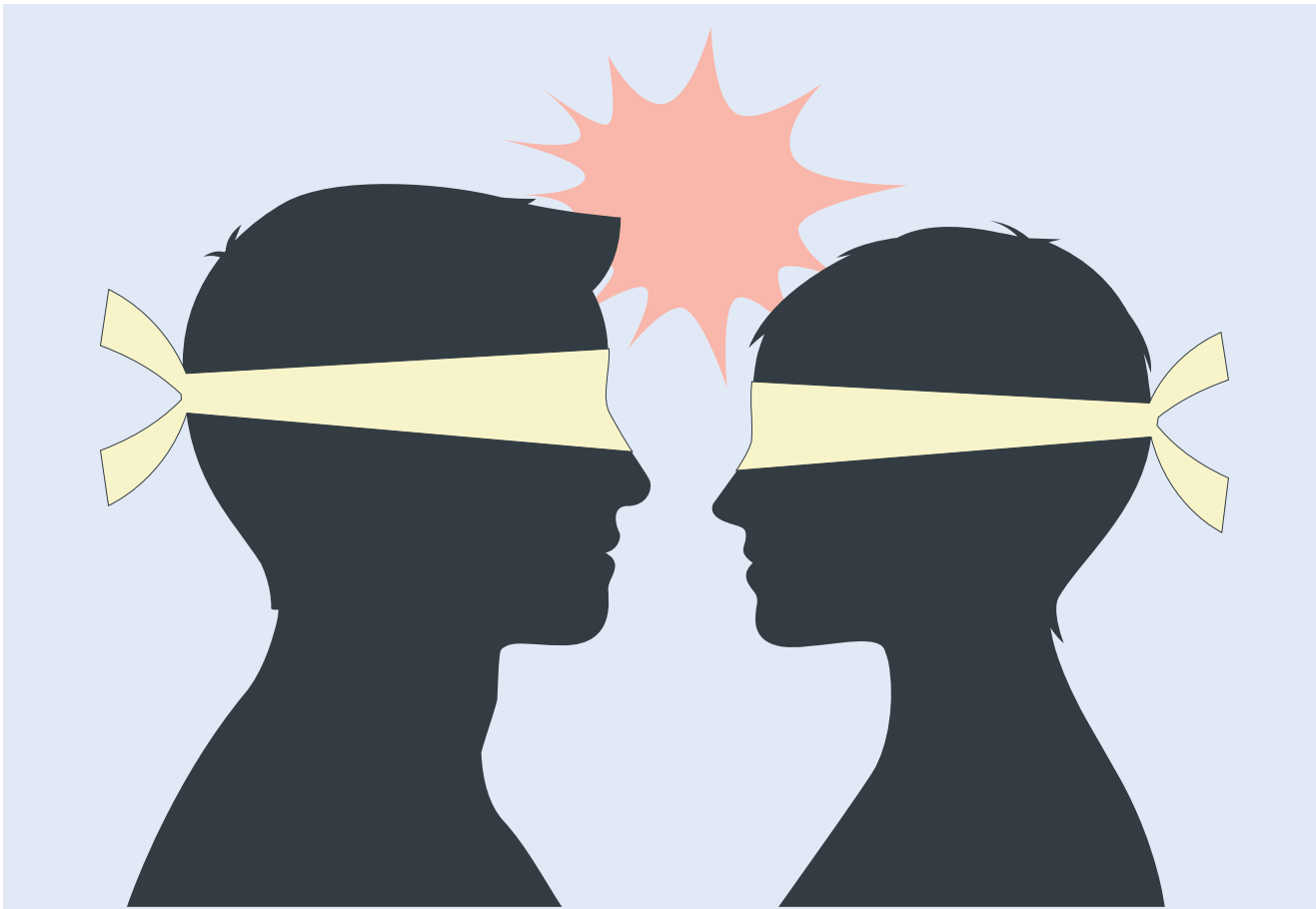
- 1. 청년은 없다
-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가까워 보이는 총여학생회(총여) 폐지 흐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내려졌다. 총여 폐지가 한국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백래쉬(Backlash, 특정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일련의 의식이나 행동)라는 의견, 많은 대학에서 총여의 존재감과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결과라는 의견, 학생자치활동이 약화된 결과의 하나라는 의견 등이다. 각자의 근거를 가진 다양한 해석이 암시하듯 문제는 총여 폐지라는 현상 자체보다도 그 기저에서 이 현상을 빚어낸 인식에 뿌리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학생 총투표 결과에 따라 연세대 회칙 내 총여 설립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 남아있는 총여의 수는 마침내 ‘0’이 됐다. 앞서 동국대, 성균관대 등이 연세대의 경우와 같이 학생 총투표를 통해 총여 폐지를 결의했고 한양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는 출마자 부재나 투표율 미달로 총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은 전자에, 서울캠퍼스(서울캠)은 후자에 해당한다.

대학가 총여 폐지로 드러나는 젠더갈등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1월 7일 ‘총여 폐지 및 총여 관련 규정 폐기, 후속 기구 신설에 대한 학생총투표’ 결과로 총여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2018년 6월에는 총여 ‘재개편’을 요구하는 총투표가 열려 가결된 바 있다. 같은 해 총여가 자체주관한 인권행사의 일환으로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를 강사로 초빙한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씨가 ‘강사로 초빙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강연 당일 현장 시위, ‘총여 재개편 추진단’ 구성과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연세춘추, 「강연, 농성, 격론」, 2018년 5월 27일). 이후 총투표로 재개편을 결의했으나 구체적인 재개편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통창구 강화, 회칙 정비 등이 논의됐고 2018년 말 30대 총



여가 구성됐으나 얼마 가지 않아 총여 존폐 여부를 묻는 총투표 결과로 연세대 총여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동국대에서는 이보다 조금 앞선 2018년 11월 21일 역시 총투표를 통해 총여 폐지를 결정했다. 5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회칙에 근거해 중앙위원회 심의와 총대의원회 주관 토론회를 거쳐 총투표가 결정됐다. 당시 동국대 총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시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동국대 총학 회장이었던 김정도 씨는 “총여 예산이 학생 전 체로부터 받는 학생회비에서 나오지만 투표권은 여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점, 회계관리 부실과 불투명성, 여학생 휴게실 관리와 생리공결제 논의 등 총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등이 폐지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면서도 “총여 집행부 인력이 부족해 업무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대학에서 여학생은 더 이상 소수자 아냐”

우리학교 국제캠에서는 2018년 4월 28일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당시 총여 비대위원장이 확대운영위원회에 직접 총여 폐지 안건을 제청하면서 존폐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씨는 당시 “80년 후반 대학 운동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총여는 여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했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총여의 주된 역할이 일회성 복지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총여를 폐지하고 성 인권 문제를 총학 내부 부서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총투표를 통해 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국제캠 총여는 두 번의 선거 무산으로 김 씨를 제외하면 집행위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반 년 가량을 지지부진 한 끝에 지난해 3월 20일 총투표가 시행되고 ‘존치 반대’가 과반을 넘어 총여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캠에서는 총여 폐지 총투표는 없었지만 출마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면서 총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차별의 핵심은 남성성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여성성을 타자화 하는데 있다

‘총여 폐지론’의 근거는 몇 가지 경향으로 압축된다. ‘변화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 ‘남녀갈등을 유발한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거나 부실하다’ 등이다. 대학에서 여학생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학생이 억압받는 소수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총여 폐지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다. 그러나 많은 여성학자들은 이런 인식이 여성차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연구소에서 펴낸 『젠더와 사회』에서 문화인류학자 김현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특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이라는 뜻으로서의 ‘젠더’ 개념을 제시한 보부아르의 논의를 소개한다. 여성차별의 핵심적인 작동원리는 남성성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여성성을 그에 대비되는 것으로 타자화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은 차등, 불평등, 위계화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질서, 신의 창조물, 전통이나 관습, 오랜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젠더를 권력의 문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에는 단순히 숫자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것이다.

엄혜진(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사회적으로 성평등이나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안만 달라질 뿐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서 생기는 피로감이 있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갤럽)는 지난해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인식 - WIN 다국가 비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WIN(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은 세계 각국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글로벌 네트워크다.

“다수 표결만으로 정당성을 갖는 것은 ‘게으른 민주주의’”

이 조사에서 한국의 전체 응답자가운데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 ‘남녀 동등’은 37%, ‘여성에게 더 우호적’은 18%였다. 갤럽은 “한국의 ‘남녀동등’ 응답은 40개국 평균보다 많지만, 다른 나라보다 성별 차이가 큰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한국 남성은 36%가 우리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남성에게 더 우호적’, 25%가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답한 반면, 한국 여성은 53%가 ‘남성에게 더 우호적’, 11%가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차이는 19-29세의 응답결과에서는 더 커진다. 한국의 19-29세 남성에서 우리 사회가 ‘남성에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33%, ‘여성에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27%였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같은 질문에 58%와 9%라는 차이가 났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특히 청년층 내에서 남녀 간 인식 양상에 거대한 단절이 포착되고 있다.

연세대 30대 총여 ‘PRISM’은 총투표로 총여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자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민선 총여 회장은 “당선된 지 10일 만에 총여 폐지 총투표 요청이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당선됐다는 것은 유권자가 총여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우리가 들고 나온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총투표안의 안건 제목이 ‘총여 폐지 및 후속 기구 신설에 대한 안’이었는데 총투표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탄생한 조직을 없애는데에는 많은 논의와 후속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는 “재개편 총투표 이후 총여 관련 회칙을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개편 TFT가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나온 논의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총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결국은 ‘일단 총여를 없애고 보자’는 뜻이 아니었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 씨는 “오로지 다수의 표결만 있으면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게으른 민주주의’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총여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탄생한 조직이고, 그런 조직을 없앤다면 많은 토론과 후속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합의된 ‘내적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구조’의 변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총여가 사라진 자리에는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후속기구, 총학 차원의 업무인계 같은 대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총여의 존폐 여부로 해결되지 않았다. 기자 리영희는 생전,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라는 글에서 “문제는 법적구조보다도 정치의 내면정신에 있다”라는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의 국가나 국민의 생활원리가 되어주는 일반적 정치의 내적 정신이 건전하지 않을 때 법적 구조의 건전이란 기대하기 어렵다”고 썼다. 학생자치 내에서 무엇이 이른바 ‘진정한 성평등’인지를 판단할 합의된 ‘내적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총여 폐지라는 ‘법적구조’의 변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이 결정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접근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학생자치의 자기파괴를 가속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길을 찾아가는 호모 노마드

교수칼럼

김경수
임상약리학 교수



이제 우리는 B.C(before Corona)를 지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인 A.C(after Corona)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본다. 셀 수 없이 긴 세월을 살아온 인류에게 지금 같은 격변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다. 수십만 년을 수렵과 채집으로 유랑생활을 하던 인류가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1만여 년 전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깨우치며 새로운 생활방식인 정주생활을 하게 된다. 야생상태의 작물은 충분한 식량을 담보할 그런 작물이 못되기에 정주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농작물 길들이기와 유전적 개량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 이제 그 작물들은 농부의 도움없이 자연환경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창조한 식물’이 되었다.

더불어 동물들의 가축화도 진행되어 야성을 잃은 동물들 역시 자연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인간과 공생하며 인류문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가축화에 따른 대가도 치러왔다. 동물들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서 동물들과 함께 따라온 불청객들이 여럿 있다. 홍역, 결핵, 천연두, 인플루엔자, 백일해, 열대말라리아 같은



(사진=픽사베이)

질병들이 소, 돼지, 오리, 개, 닭 등 여러 동물들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대표적인 질병들이다. 1980년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또한 유인원에 있던 SIV(유인면역결핍바이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진다.

인류는 여러 격변한 환경변화에 대한 삶의 적응을 뛰어넘어 그를 이용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힘을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유목민적 행위와 삶을 뜻하는 노마디즘(Nomadism)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백만 년의 긴 시간 동안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돌아다닌 본성이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어 인간의 정주생활인 지난 6000년 정착민의 역사는 긴 인류사에 아주 잠깐 끼어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다시 유랑을 계속하며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넘어 새것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

래서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의 이름을 따서 인류의 정체성을 Homo Nomad, 즉 ‘유목하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지구촌 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 유목민들은 Wifi로 연결되는 곳이면 디지털 기기 하나 들고서 세계 구석구석을 내 안방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나 우리의 편리함과 욕심을 위해서 생태환경을 너무 파괴하였고 서식처를 잃은 동물들의 역습으로 갑자기 길 위에서 멈춰버린 호모 노마드는 더욱더 좁은 공간에서 당분간 정주하여야 할 것 같다. 호모 노마드인 우리가 과연 이러한 정주생활을 얼마나 오래 견뎌낼 수 있을까? 노마디즘은 공간적 이동 외에도 더 나아가 특정한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고 창조해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미래 현대인의 생존전략으로 그 의미를 넓혀서 생각하고 있다.

철학적 용어인 노마디즘을 빌리지 않아도 뇌과학에서 잘 알려

진 뇌가소성(brain plasticity) 이론으로도 인류 미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뇌가 변화된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경우, 자신의 기능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신경세포의 연결접합점인 시냅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구조가 형성되어 새로운 방법과 길을 뇌세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즉,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문제해결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의 도전 앞에서 호모 노마드 특유의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응전을 하며 코로나 이후의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더 나은 문명의 길을 열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여마당

이정우
언론정보학 2019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번 학기는 ‘안녕하세요’로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님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연결 상태와 강의의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말로 강의는 시작된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ক고 채팅창은 “네, 잘 들립니다”라는 학생들의 대답으로 잠시 도배된다.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학습권 침해는 다시 ‘형평성 문제’와 ‘강의 질 저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은 형평성 문제다. 대면 수업은 강의에 출석만 제대로 한다면 참석자 모두가 동일한 강의에 노출된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다르다. 제 시간에 화상 강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동일한 강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 등 외부 방해 요소는 강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시청각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강의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해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화면만을 보며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굉장히 힘들다. 강의 전달자는 학생들의 질문, 표정, 수업 태도 등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곤 한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는 이 중 하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인터넷 강의(인강)가 현장 강의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장강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타 강사들의 질 좋은 인강을 들으며 공부하던 학생들은 지금 약 10~20배 비싼 ‘등록금’을 내고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하나의 절대지수도 다른 것 옆에선 상대지수가 되어 비교되기 마련이다. 동일한 매체를 이용하는 ‘입시 인강’에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교 ‘비대면 강의’가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비대면 수업에 아직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배제하고서도 비대면 수업의 불가피함과 필요성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처럼 비대면 수업에 잘 적응한 ‘적자(適者)’가 되지 않으면 이번 학기 성적에 큰 ‘적자(赤字)’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대학교는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소비자인 학생들의 불만이 생기는건 당연한 현상이다. 학교는 서비스 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비대면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이 더 비대해지기 전에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 미디어디자인(주)



인터뷰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 청년 의원으로 국회 향한다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이지민 기자 delicato@khu.ac.kr

#. 대한민국 국회에 90년생이 온다. 전체 의석 수에 0.02%도 미치지 못하지만 기성세대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국회에 입성했다는 것만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청년 정치인들이 정당을 위한 장식품처럼 여겨졌던 것을 넘어 세대교체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되는 순간이다. 우리신문은 제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90년생 당선자 3명 중 우리학교 동문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 씨를 만나봤다.

“주위에서 ‘결국 국회의원이 됐네’라는 말씀을 많이 한다. 학교생활 내내 정치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제가 하는 일들이 가망성 없다고 본 분들께도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을 드린 것 같다.”

용혜인 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순위로 당선 확정됐다. 재학 중 용 씨는 누구보다 학교생활에 열중했다. 남들보다 오래 학교를 다니며 20대를 학교생활로 가득 채웠고, 학과 학생회장도 지냈다. 용 씨는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며 “지난 20대의 기간은 지금의 30대를 만드는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냈고,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느 학생들처럼 학업에 열중하던 시기도 있었다. 용 씨는 웃으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 학과 교수님들이 안 믿으실 텐데 1, 2학년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마주한 경험들은 현재 용 씨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용 씨는 친구들을 따라 종합편성채널 반대 집회에 나가고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고공시위를 응원하는 희망버스에 오르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 씨는 이번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도 했다. 이때 겪은 현장은 용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 아직도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 이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제가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폭력적인 현실을 직접 목도하며 용 씨는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갔지만, 졸업을 앞두고선 평범한 삶을 준비했다. “학년이 올라가니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제가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결심했다.” 물론 고된 수험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용 씨는 안정적인 삶과 원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용 씨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의미 있을까 고민했다. 내가 돈을 못 벌고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사회에 대한 사명감보

다는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우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용 씨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학교로 되돌아갔다. 이어 용 씨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는 제 인생의 변곡점이었다. 304명이 죽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굉장히 후진적인 참사였다.” 참사 직후 용 씨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했다. 이때 용 씨는 “이를 주도하며 중간고사 이후로는 수업을 하지도 못 들었다. 기말고사만 치르고 학기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후 용 씨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상식이 무시되는 한국 현실에 분노하며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다.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사건 이후에 수습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 굴레를 벗어던지려면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결

심했다.” 용 씨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느낀 무력감과 분노가 자신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후 청년 세대를 구성하는 공통점이라고 봤다. “당시 부당함에 모든 국민이 움직였다.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 2014년 이후 대학을 입학한 후배들을 만나보면 세월호 참사에서 큰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인 이 세대에게는 특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용 씨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은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N번방 사건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탈가정 여성 청소년 보호 ▲장애인 부양 의무제 폐지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이때 용 씨는 “아러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너무 지체됐다. 물론 구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50, 60대 남성들이 주축인 국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20, 30

대 여성들이 분노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이 안 될 것이다.”고 지난 국회의 행태를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 씨는 이번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논의부터 진행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 연합정당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용 씨는 “기본소득은 2만 명 당원들이 열망하는 중요한 실현 과제다. 실현을 위해 ‘연대연합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소수정당의 권리가 보장됐고 당선 가능성도 보장받았다.”며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용 씨를 둘러싸고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국회에서 11번째로 국회의원 배지를 받은 용 씨는 지난달 28일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에서 ‘금배지 언박싱’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용 씨는 “영상이 편집되며 배지를 팔면 안 된다는 대답이 빠져 오후의 소지가 생겼다. 표현이 투박했던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소수정당 초선 여성 의원은 발언권이 약해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논란이 되는 것은 제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심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용 씨는 “언젠가 국회의원이 되어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막상 당선이 되니 어깨가 무겁다. 경희대학교에서 쌓았던 경험과 그 기억들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4년 동안 자랑스러운, 믿을 만한 국회의원이 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며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서 앞으로 각오를 전했다.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주요변경사항]

- 수업료 : 학점당 97,000원
- 계절학기 '희망과목담기' 실시
 - 개설강좌 확정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가 목적이며 정규학기 희망과목담기와는 다름
 - 전공(필수, 선택) 및 대체능 계열 전공 및 실험실습 강좌 확대
- 수업방법 : 대면 수업 예정(원격수업 포함)
 - 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예정
- 추가 수강신청 실시 : 1차 수강신청 및 등록 이후 여석에 대한 추가 수강신청 실시
 - ※ 2020학년도 1학기 실험·실습, 실기 강좌 수업 집중이수기간과 하계 계절학기 수업기간이 일부 중복 될 수 있으니 계절학기 수강 신청 시에 참고 바랍니다.

1. 계절학기 세부일정

구분	일시	비고
희망과목담기	2020.5.18.(수), 10:30 ~ 5.15.(금), 17:00	
개설과목 공고	2020.5.20.(수)	개설강좌 확정 및 공고
수강신청 기간(1차)	2020.6.3.(수) ~ 6.5.(금) 10:30 ~ 17:00	
수업료 납부기간	2020.6.9.(화), 09:30 ~ 06.11.(목), 16:00	
폐강공고(1차)	2020.6.12.(금), 10:00	
추가 수강신청 기간(2차)	2020.6.15.(화) ~ 6.16.(화) 10:30 ~ 17:00	수강신청 여석에 대한 추가 수강신청
추가 수업료 납부기간(2차)	2020.6.18.(목), 09:30 ~ 6.19.(금), 16:00	
폐강공고(2차)	2020.6.22.(월), 12:00	
폐강강좌 수강신청	2020.6.23.(화), 09:00 ~ 17:00	폐강과목 수강생에 한함
수업기간	2020.6.29.(월) ~ 7.20.(월)	16일
성적입력 및 열람	2020.7.20.(월) ~ 7.21.(화)	
성적정정일	2020.7.22.(수) ~ 7.23.(목) 12:00	
학점교류생	추천기간 : 2020.5.29.(금), 17:00 까지	학번부여 : 2020.6.3.(수)

* 계절학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안내

-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3학점	온라인 강좌	온라인 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3학점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3. 희망과목담기

-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 '희망과목담기' 실시 (실제 수요 반영)
 - 수업시간 및 교강사는 희망과목담기 이후 개설 확정 후 배정
- 운영방법 : 희망과목 담기 완료 후 예비과목 담기 순(정규학과와 동일)
- 희망과목 : 수강가능학점(6학점) 내에서 담기 가능(동일강좌 중복 담기 불가)
 - 예비과목 : 희망과목담기 완료 후 최대 3과목까지 예비담기 가능(동일강좌 중복 담기 가능)
 - ※ '희망과목담기' 인원에 따라 개설강좌가 확정되오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희망과목담기 방법안내
 - ① 희망과목담기 기간에는 수요 조사를 위하여 강좌명으론만 개설되어 있음 (예: '글쓰기1(GEB1101-G00)' 강좌 1개로만 개설되어 있음)
 - ② 희망과목담기로 해당 강좌의 수요 조사를 통해 추후에 인원에 따라 강좌 분반 및 교강사 배정(희망과목 담기 기준 인원 미달 강좌는 폐강)
 - ③ 수강신청 시 분반 강좌 중 선택하여 수강신청
 - 1) '희망과목담기' 방법 : [희망과목신청] → 조회 → [담기] → [희망과목내역] → 강좌 확인
 - 2) 수강신청 : [수강신청내역] → 수강희망과목 → 강좌 생성 및 시간표 정보 확인 → [신청] 수강신청(예: 분반이 4강좌인 경우 4강좌가 모두 '수강신청내역 수강희망과목'으로 담겨 있음)

4. 수강신청

- 대상자 :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휴학생, 학점교류 대학 학생
- 수강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1) 타 대학 계절학기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제한범위에 포함됨
- 2) 국제교류팀, 미래인재센터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수강신청 방법
 - 1) 정규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수업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5. 수강등록

- 등록금액 : 1학점당 97,000원
- 등록방법 : 경희대학교 포털 > 등록(장학) > 등록 > 계절수업료 조회
- 납부방법 :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수강 신청한 캠퍼스별로 등록금 납부(캠퍼스별 가상 계좌가 다름)
 - ex) 학생이 서울·국제 동시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서울·국제 별도 납부
- 3)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니 등록기간 내에 납금하기 바랍니다.

6.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2020.06.24.(수) 09:30 ~ 06.28.(일), 23:59	전액 환불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 경희대학교 포털 → 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 → 계절수업료 환불 → 대상 체크 → 환불신청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20.06.29.(월) 09:30 ~ 07.03.(금), 23:59	수강료의 2/3 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20.07.06.(월) 09:30 ~ 07.08.(수), 23:59	수강료의 1/2 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개설기준 : 전공, 교양 15명 이상
- 전공 강좌 개설 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 2020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수업 수강신청 불가
- B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수업 재수강 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 수강 신청 기간 이후 수강 강좌 변경 불가(수강 취소만 가능)
- 2차 폐강 과목 수강신청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각 캠퍼스 담당 부서 (서울 : 교무처 학사지원팀 / 국제 : 교무처 교직원)로 방문
- 계절수업 수업 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F(또는 N)가 부여됨
- 계절수업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 휴학생 계절수업 수강 시 유의사항
 - 1) 휴학생 중 2회에 한하여 계절수업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 2) 수업 연한 초과자는 휴학 중 계절수업 수강을 불허함

8. 문의처

- 서울 : 교무처 학사지원팀 / 02)961-0063 ~ 54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1층 113호
- 국제 : 교무처 교직원 / 03)1201-3047 ~ 8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본부